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슈브’는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로 번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힘들고 괴로운 돌아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프고 괴로웠던 귀향길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결국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고, 비움을 가득 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이키는 아프지만 그 결과는 너무 귀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며 교회는 회개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메시지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돌아감의 이야기는 회개의 원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가기 위해 한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까?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나를 돌봐 주실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진심으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4(월)	6/25(화)	6/26(수)	6/27(목)	6/28(금)	6/29(토)	6/30(주일)
시 13-18	시 19-25	시 26-31	시 32-37	시 38-42	시 43-48	시 49-55

QT

이번 주 QT 말씀

6/24(월)	6/25(화)	6/26(수)	6/27(목)	6/28(금)	6/29(토)	6/30(주일)
왕하 3:13-27	왕하 4:1-7	왕하 4:8-17	왕하 4:18-37	왕하 4:38-44	왕하 5:1-14	왕하 5:15-2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2. 내 삶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오미의 회개 3단계를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3. 회개하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